

경기침체, IMF 이후 최장기간...대면·서비스업 피해 집중

코로나19 1년, 이전 수준 회복 못해...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

제조업 V자 반등, 대면·서비스업 끝없는 부진→K자형 양극화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지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여가 지났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민간소비를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분야별·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코로나19 1년, 충격 이전 수준 회복 못해...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

한경연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GDP는 462.8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 GDP(468.8조원)의 98.7% 수준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년 만에 분기별 GDP가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101%)했다면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에 빠졌다고 설

명했다.

한경연이 위기발생 전후의 분기별 GDP 최대 감소율을 계산해 경제위기별 충격강도를 측정한 결과, 외환위기(7.6%), 코로나19(4.4%), 금융위기(3.2%) 순으로 나타났다. 충격 회복에는 외환위기가 6개 분기, 금융위기는 4개 분기가 소요됐으며, 코로나19 위기는 5개 분기째 진행 중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반복되면서, 경제 회복 기간이 외환위기 수준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소비 L자형 장기침체 지속,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저점 이후 회복

항목별로는 민간소비의 L자형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지난해 2분기 이후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경기 부진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4분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93.4%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경제위기 당시에는 1~2분기 만에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 소비위축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확진자 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반복이 소비위축 장기화의 원인”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올해 말까지 소비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수출은 지난해 2분기에 코로나19 직전 대비 82.8%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빠르게 코로나 회복국면에 진입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등 주요 소비시장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출실적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V자 반등, 대면·서비스업은 끝없는 부진→업종별 K자형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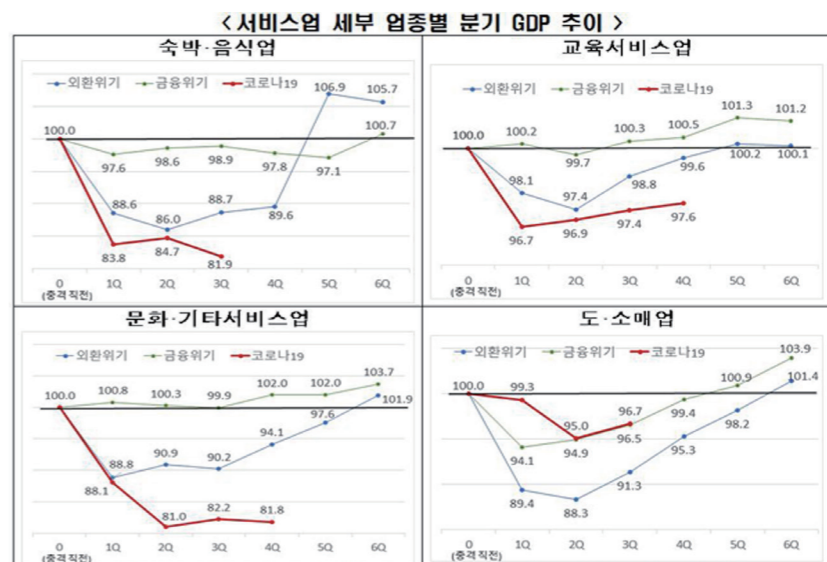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업종별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분기별 GDP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충격 직전 대비 90.6%)으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충격 이후 4개 분기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제조업 충격회복에 5개 분기가 소요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속도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글로벌 교역량 감소해 국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비대면화의 영향으로 반도체, 가전 등 주력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업 업종이 빠르게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7.9%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타격이 심했다. 이들 업종의 분기별 GDP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뚜렷한 회복 양상을 보이지 못했다.

한경연은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



* 분기별 GDP(계절조정, 실질) 자료 활용, 충격 직전분기 GDP(=100)를 기준으로 환산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스업은 현재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백신 접종 및 집단면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최악의 불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소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회복경로를 따라갔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19.1%)하면서 오프라인 부문의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

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충격 이후 빠른 반등세를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위기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대면·서비스업의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때 보다 심각하다”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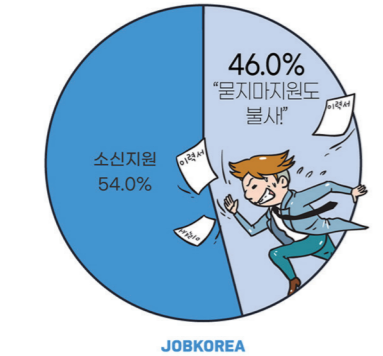
이마트, 정월 대보름 앞두고 오곡부럼 할인 행사

21일 오전 이마트 성수점 농산매장에서 모델들이 정월 대보름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정월 대보름인 오는 26일까지 찰쌀, 서리태, 팥, 잭과, 땅콩, 호두, 건나물 등 총 33개 상품을 최대 28% 할인 판매하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2021.02.21. (사진=이마트 제공)

상반기 신입직 취업률 46.0% “문지마지원도 불사”

취준생 문지마지원 이유 1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73.9%)'

취준생 46% “문지마지원도 불사”
(1.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2.문지마지원도 불사, 3.문지마지원도 불사)



상반기 신입직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준생 2명 중 1명은 '문지마지원도 불사'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입직 취업에 도전하는 취업준생 54.0%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만 소신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46.0%는 '문지마지원, 문어발 지원이라도 불사하며 최대한 많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적지 않은 취업준생들이 문지마지원

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상반기 취업에 임하는 데는 막대한 취업경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문지마지원도 불사하겠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막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응답이 73.9%의 압도적인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 '기업들의 채용공고가 적어 일단 보이면 무조건 지원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67.0%의 높은 응답률로 2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으로의 채용에 대한 기약이 없을 것 같아서'가 45.3%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어떤 기업, 직무가 나와 맞는지 모르겠어서(22.0%)', '인적성/면접전형 등을 경험하며 실전 연습의 일환으로(21.47%)', '이미 다수의 취업준생들이 문지마지원, 문어발 지원을 하고 있어서(19.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소신지원을 계획하는 취업준생들은 '취업 희망 기업에만 집중하기 위해서(72.8%, 응답률 기준)', '취업 회

망 기업과 직무가 명확해서(59.0%)'를 나란히 소신지원의 이유 1, 2위에 꼽았다. 여기에 '문지마지원시 최종합격의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22.9%)',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 같아서(12.2%)', '기업차원에서 문지마 지원을 필터링한다는 기사 등을 접해서(10.9%)' 소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잡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취업자신감이 낮은 취업준생들이 문지마지원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잡코리아가 설문에 응한 취업준생들에게 상반기 자신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주관식으로 기재하게 한 결과 평균 59점으로 집계됐다.

지원 계획에 따라 응답군을 나눠 집계해보면 △소신지원을 선택한 응답군에서는 평균 64점으로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다.

반면 △문지마지원을 선택한 응답군은 이보다 11점이 낮은 평균 53점으로 집계됐다.

김민정기자

노트북 'LG 그램 360' 출시...16형 화면에 무게 1480g

화면 360도 회전, 노트북·태블릿 모드로 사용 가능

옵시디안 블랙, 퀴츠 실버, 토파즈 그린 등 색상



LG전자가 22일 'LG 그램(gram)'의 신규 라인업 'LG 그램 360'을 새롭게 출시하며 투인원 노트북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 그램 360'은 그램의 초경량·대화면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화면 360°회전의 자유로움을 더한 제품이다. 고객은 상황에 따라 노트북, 태블릿 모드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16형과 14형 2종으로 출시된다. LG전자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노트북의 화면 크기가 15.6형(39.6cm), 13.3형(33.7cm)임을 감안, 고객이 좀 더 큰 화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컴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화면 크기는 늘렸다.

'LG 그램 360'은 생산성과 휴대성을 모두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고객은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 등 키보드를 사용할 때에는 노트북 모드로 사용하고, 영상 콘텐츠를 즐기거나 펜을 활용할 때는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LG그램 360 16'은 대화면 투인원 노트북임에도 1480g의 무게에, 80와트시(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휴대성이 탁월하다.

신제품은 디자인 완성도도 높다. 직각으로 마감된 모서리에서는 단아한 세련미가 배어 나오며, 알루미늄(상판 커버)과 마그네슘(바디)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해 가벼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다. 색상은 '옵시디안 블

랙(16/14형)', '퀴츠 실버(16형)', '토파즈 그린(14형)' 등 총 3가지로 출시되며, 색상별 출시일은 상이하다.

'LG그램 360 16'은 16:10 화면비의 WQXGA(2560x1600)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FHD(1920x1080) 해상도 디스플레이보다 화질이 더욱 선명하고 깨끗하다. 또한 디지털 영화협회(DCI)의 표준 색 영역 DCI-P3를 99% 충족해 색 표현도 풍부하고 자연스럽다.

'LG 그램 360'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Tiger Lake)를 탑재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빠르다. 인텔의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엑스이(Iris Xe)도 장착해, 고화질 영상 작업 및 게임 구동 시 빠른 속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 인텔이 제시하는 차세대 노트북의 새로운 규격인 '인텔 EVO 플랫폼' 인증도 획득했다.

LG전자는 기본 제공 저장공간보다 더 많은 용량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듀얼 슬롯을 적용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추가 SSD를 장착해 최대 2TB(테라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LG 그램 360'은 '미국 국방부 신뢰성 테스트(MIL-STD; Military Standard)의 7개 항목(충격, 먼지, 고온, 저온, 진동, 염류, 저압)을 통과해 내구성도 인정받았다.

출하가는 16형 224만 원, 14형 209만 원(5/8GB/SSD 256GB기준)이며, 모델 별로 상이하다.

최이슬기자

지난달 주택 매매 35.4% 줄어...지방 거래량 '급감'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9만679건으로 전월 14만281건 대비 35.4% 감소했다.

전년동월 대비는 10.5% 감소한 것이고,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2.2% 증가한 것이다.

1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만7132건)은

전월 대비 2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9% 줄었다. 지방(4만3547건)은 전월 대비 43.5%, 전년동월 대비 5.2%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6만4371건)는 전월 대비 39.3%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3% 감소했다.

아파트 외(2만6308건)는 전월 대비 23.2% 감소,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했다.

전월세거래량도 감소했다. 지난 달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9537건으

로 전월(18만3230건) 대비 2.0% 감소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3.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0%로 전년동월(38.3%) 대비 2.7%포인트(p) 증가, 5년평균(41.8%) 대비 0.8%p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11만6684건)은 전월 대비 3.8% 감소,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지방(6만2853건)은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기획재정부